런던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에 관한 연구

김 순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Korean Dress Collection of the Horniman Museum in London

Soon-Yo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1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7일)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rmative features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n dress collection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n London. The Museum holds eighteen items of Korean dresses donated by Mrs. C. de J. Luxmore in 1948 and by Mrs. Bowra in 1953. Male dresses consist of white silk outer robe (durumagi), a pale violet silk waistcoat (jokki), a jade green silk jacket (jeogori), pale yellow silk trousers (baji), a pair of ankle bands (daenim), a cotton waistband (dae), a silk purse (jumeoni), a rattan under-vest (deungbaeja), a pair of rattan wristlets (deungtos), a top hat (gat) and a skullcap (tanggeon). Female dresses comprise a jade green silk jacket (jeogori), an ivory silk skirt (chima), a light blue silk petticoat (sokchima), two kinds of white cotton trousers (sokbaji and soksokgot), a pair of silk wristlets (tosi) and a pair of padded socks (beoseon). A Korean dress collection of the Horniman Museum shows a set of ordinary dress items worn by a married couple in the 1930s and the 1940s. Of these items, a silk petticoat (sokchima) and a rattan under-vest (deungbaeja) can be highly evaluated as object resources in the history of Korean dress. The petticoat is a rare and valuable example that represents an early type of modern petticoat that has replaced a traditional petticoat (dansokgot). The rattan under-vest has square neckline and two tiny sleeves similar to a Western cap sleeve. This kind of under-vest is a transitional form shown between under-vest similar to the Korean waistcoat (baeja) and one similar to the Western waistcoat (jokki).

Key words: Korean dress collection, The Horniman Museum, Modern petticoat, Rattan under-vest; 한복 소장품, 호니만 박물관, 현대 속치마, 등배자

I. 서 론

1990년대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는 주로 일본, 프랑스, 러시아, 미국, 독일 등의 유명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룬 것은 2010년 발간된 일본 문화학원 복식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가 전부이며(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1999),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브루클린 박물관,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등의 보고서(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6, 2007, 2008)에도 간혹 복식 문화재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소략한 편이다.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국외 소재 복식 유물에 관한 연구가 종종 행해지기도 했다(Kwon & Hong, 2008, 2009; Yun & Son, 1994; Yun & Lim,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onyoung1.kim@gmail.com

1998). 그러나 국외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유물의 접근 용이성이 떨어지고 유물의 소재 파악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해외에 소재한 다수의 복식 문화재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영국 런던의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20세기 전반의 한국 복식 유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관계자 및 연구자들에게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문화재의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다. 나아가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들의 형태적,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복 유물의 복식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호니만 박물관은 런던 근교에 소재한 중소 규모 인류학 박물관으로서 본 연구가 해외의 대형 유명 박물관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지역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문화재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는 유물조사와 문헌고찰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유물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9년 1월 15일에 이루어진 1차 조사는 예비조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인류학 부서의 담당 큐레이터인 Dr. Fiona Kerlogue와 만나 유물의 소장 경위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한복 유물의 종류를 파악했다. 2009년 3월 16~17일 양일간 행해진 2차 조사에서는 각 유물의 전체 사진촬영을 주로 했으며 각 유물의 전체 크기(가로와 세로 등)를 측정했다. 2009년 5월 18~19일 양일간 행해진 3차 조사에서는 각 유물의 세부 사진촬영과 함께 세부 특징을 조사했다. 조사된 유물들의 조형적 특징과 복식사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근대 한복에 관한 도록과 논문들을 함께 문헌고찰했다.

II. 박물관 소개 및 한복 유물의 소장 경위

호니만 박물관의 설립자는 빅토리아 시대의 차 무역업자였던 Frederik John Horniman이다. 그는 1860년대부터 전 세계의 자연사 표본들과 민속 공예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대중들이 수집품을 볼 수 있도록 Forest Hill 자택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집품들이 자택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게 되자 1898년 Horniman은 Charles Harrison Townsend에게 새로운 박물관의 디자인을 의뢰한다. 새 박물관이 1901년 문을 열었고 설립자는 박물관을 주변의 땅과 함께 여가와 교육 및 오락용으로 대중들에게 헌납했다. 초기의 소장품들은 자연사 표본들, 문화적 공예품들과 악기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10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소장품이 많이

늘어나 현재 호니만 씨의 원래 유물은 박물관의 전체 민속품 및 악기 유물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설립자의 아들인 Emslie의 기부에 의해 1911년 박물관의 추가 건물이 세워졌다. 1999년 박물관은 이 추가 건물의 일부를 허물고 새로운 확장 공간을 만드는 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 6월 다시 문을 열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Horniman Museum, 2011).

호니만 박물관은 약 35만점의 인류학, 자연사, 악기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총 9만점의 인류학 유물 가운데 8만점이 민속 유물이며 나머지 1만점 정도가 고고유물이다. 자연사 표본은 약 25만점이며, 악기 유물은 7천점 이상이다. 그 가운데 특히 민속 유물과 악기 유물들은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 전시되지 않은 대부분의 유물들은 Greenwich에 소재한 박물관의 연구 수집 센터(SCC: The Horniman Museum Study Collections Centre)에 보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한복 유물도 모두 SCC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유물 조사도 박물관이 아니라 SCC에서 이루어졌다.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유물은 총 18점이다(Table 1). 그 가운데 남자 복식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두루마기 1점, 조끼 1점, 저고리 1점, 바지 1점, 대님 1쌍, 허리띠 1점, 주머니 1점, 등배자 1점, 등토시 1쌍, 갓 1점, 탕건 1점으로 총 11점이다. 여자 복식 품목은 저고리 1점, 치마 1점, 속치마 1점, 속바지 1점, 속속곳 1점으로 총 5점이며 기타로 여자용으로 추정되는 토시 1쌍과 버선 1켤레가 있다.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유물 가운데 갓과 탕건, 등배자와 등토시를 제외한 나머지 14점의 남녀 한복 일습은 1953년 Bowra 부인에 의해 기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Bowra 부인이 누구인지 유물의 입수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Kerlogue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Bowra 여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Bowra 가문은 중국에서 세관 관련 사업을 경영했던 부유한 가문이었다고 한다. 2차 대전 당시 호니만 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은 기록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수장고의 곳곳에 산발적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1953년'이라는 연도는 유물이 박물관에 기증된 연도라기 보다는 유물을 정리한 해로 보아야 더 타당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박물관이 한복 유물을 소장하게 된 시기는 정확히 말해 1953년 혹은 그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갓과 탕건은 기증자가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Bowra 여사에 의해 기증된 남녀 복식 일습의 일부였을 것으로

Table 1. Korean dress items held in the Horniman Museum

M/F	Item	Museum number	Donator	Year of donation
Men's dress	Outer robe (durumagi)	8.10.53 / 1.5	Mrs. Bowra	1953
	Waistcoat (jokki)	8.10.53 / 1.1		
	Man's jacket (jeogori)	8.10.53 / 1.7		
	Trousers (baji)	8.10.53 / 1.6		
	Ankle band (daenim)	8.10.53 / 1.2-3		
	Waist band (dae)	8.10.53 / 1.?	Mrs. C. de J. Luxmore	1948
	Purse (jumeoni)	8.10.53 / 1.?		
	Under vest of wisteria (deungbaeja)	8.7.48 / 15		
	Wristlets of wisteria (deungtosì)	8.7.48 / 13-14	Mrs. Bowra (presumed)	1953
	Top hat (gat)	NN184.1		
Women's dress	Skullcap (tanggeon)	NN184.2	Mrs. Bowra	1953
	Woman's jacket (jeogori)	8.10.53 / 3.7		
	Skirt (chima)	8.10.53 / 3.6		
	Petticoat (sokchima)	8.10.53 / 3.1		
	Under trousers (sokbaji)	8.10.53 / 3.5		
Unidentified	Under trousers (soksokgot)	8.10.53 / 3.4	Mrs. Bowra	1953
	Wristlets (tosi)	8.10.53 / 3.2-3		
	Socks (beoseon)	8.10.53 / ?		

추정된다.

Bowra 부인이 한복들을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녀의 가문이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기간에 그녀가 한국의 복식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녀의 복식 일습이 모두 잘 갖추어진 것을 볼 때 전체 복식의 계획 구매를 통한 소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등배자와 등토시는 1948년 C. de J. Luxmore 부인에 의해 박물관에 기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Luxmore 부인의 신상과 유물의 입수 경위에 대한 기록은 남겨진 바가 없다.

III. 남자 한복의 조형적 특징

1. 의복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남자의 의복으로는 두루마기, 조끼, 저고리, 바지와 대넙, 허리띠와 주머니, 등배자와 등토시가 있다.

1)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백색 명주 겹감과 연초록색의 얇은 평견

직물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 두루마기이다(Fig. 1). 뒷길이 132cm, 화장 83.3cm, 뒤폭 64.4cm 크기이며 0.2~0.3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Table 2). 두루마기 깃의 형태는 동그래 깃이며 깃너비는 8.5~8.2cm로 안깃너비가 조금 좁다. 겹깃길이 33cm, 고대 19cm, 안깃길이는 43cm이다. 겹감과 같은 감의 3.7cm 너비의 동정이 겹깃 시작 부위에서 6cm 올라간 위치에 달려 있다. 겹고름은 7cm 너비로 긴 고름의 길이가 117cm, 짧은 고름이 99cm이다. 안고름은 6cm 너비로 64cm의 긴 고름이 안깃 끝에 달려 있으며 49cm의 짧은 고름이 진동 아래에 달려 있다. 옆 무에는 동아래에서 13cm 내려온 위치에 16.5cm의 트임이 있다(Fig. 1(c)).

두루마기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연초록색의 안감이 겹으로 보이도록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고 수구가 접혀 올려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매 끝에는 오랫동안 접혀 있었던 선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필자의 권유로 백색 명주가 겹으로 나오도록 유물을 바로 잡은 후에 사진촬영과 실측조사를 실시했다. 오랫동안 뒤집혀 보관되어서인지 겹감보다 안감의 색이 군데 군데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겹감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나 왼쪽 어깨와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땀으로 인한 오염이 있다.

Fig. 1. Man's outer robe (durumag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2) 조끼

조끼는 연보라색 숙고사 겉감과 소재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조끼이다(Fig. 2). 뒷길이 60.5cm, 뒤폭 61cm 크기이며, 단추구멍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봉틀로 견고하게 박음질 되어 있다(Table 2). 뒷길이가 앞길 이보다 4cm 길며 양 옆선에 트임이 있는데 뒷도련을 기준으로 9cm 올라간 위치까지 트임이 있다. 뒷길은 등술 없이 한 장으로 마름질 되었다. 앞길에는 가로 12cm 크기의 작은 주머니 1개, 가로 19.5cm 크기의 큰 주머니 2개가 달려 있으며 5개의 밤색 플라스틱 단추로 여며져 있다(Fig. 2(b)). 숙고사의 문양은 원형의 전 서체 수(壽)자와 넝쿨에 매달린 호리병박이 촘촘히 배열된 형태이다(Fig. 2(c)).

3) 남자 저고리

남자 저고리는 옥색의 유문사 겉감과 소재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저고리이다(Fig. 3). 뒷길이 58.7cm, 화장 78cm, 뒤폭 58.4cm 크기이며 0.2~0.3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Table 2). 앞치짐 분량으로 인해 앞길은 뒷길보다 1.5cm 정도 더 길다. 깃의 형태는 동그래 깃이며 깃너비는 7~6.5cm로 안깃너비가 조금 좁다. 겹깃길이 28.7cm, 고대 18.5cm, 안깃길이 34cm 이다. 두루마기 겉감과 같은 흰색 명주로 2.7cm 너비의 동정이 겹깃 시작 부위에서 10.4cm 올라간 위치에 달려 있다. 안고름은 없으며, 겉고름은 5.3~5.8cm 너비 인데 긴 고름의 길이가 83.3cm, 짧은 고름의 길이가 68cm이다.

Table 2. Measurements of man's outer robe (durumagi), waistcoat (jokki), and a man's jacket (jeogor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Construction	Material	Sewn by	Length of back bodice	Width of back bodice	Length of sleeve	Width of sleeve
Outer robe (durumagi)	Lined	Silk	Hand	132	32.2*2	51	23.8-27
Waistcoat (jokki)	Lined	Silk, cotton	Machine	60.5	30.5*2	-	-
Man's jacket (jeogori)	Lined	Silk, cotton	Hand	58.7	29.2*2	48.8	20.4-23.5

Fig. 2. Man's waistcoat (jokk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Fig. 3. Man's jacket (jeogor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Table 3. Measurements of man's trousers (baji) and a pair of ankle bands (daenim)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Construction	Material	Sewn by	Length	Width	Waist (W/L)
Trousers (baji)	Lined	Silk, cotton	Hand	125	-	16 / 122.6
Ankle band (daenim)	Lined	Silk	Hand	88	4	-
Waist band (dae)	Lined	Cotton	Hand	164.4	5.7	-
Purse (jumeoni)	Lined	Silk, cotton	Machine	15	13.5	-

안감은 등술 없이 한 장으로 마름질되었고, 겹감은 등술이 있는데 오늘날의 등술과는 반대로 입어서 왼쪽 방향으로 꺾여 있다. 겹감, 안감 모두 어깨술은 없다. 겹감과 안감 모두 길에서 쏘이 분리된 구성이나 겹감과 안감의 쏘 솔기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이한 것은 깃의 안감이 따로 없고 길의 안감을 그대로 깃 안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 부분에 흠질과 감침질로 사다리꼴 모양의 배대를 대어 안감을 연장했다(Fig. 3(b)). 겹감으로 쓰인 옥색 유문사는 평직 바탕에 지름 10cm 크기의 원형 문양이 드문드문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의 조직은 경사 2올이 꼬인 익조직이다. 문양은 전서체 수(壽)자를 가운데에 두고 5마리의 박쥐가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이다(Fig. 3(c)).

4) 바지와 대님

바지는 연황색의 매우 얇고 부드러운 평직직물 겹감과 소색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바지이다(Fig. 4). 현재의 사복바지와 형태가 동일하다. 허리 포함한 세로길이가 125cm, 허리너비 16cm, 허리둘레 122.6cm 크기이며 0.2~0.3cm 간격의 흠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Table 3). <Fig. 4>의 우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님은 연보라색 명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88cm, 너비 4cm 크기이다. 대님의 시접은 0.5cm 정도이며 0.2~0.3cm 간격의 흠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

5) 허리띠와 주머니

허리띠는 보라색의 두꺼운 능조직 면직물로 만들어

Fig. 4. Man's trousers (baji) and a pair of ankle bands (daenim)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Fig. 5. Man's waistband (dae) and purse (jumeon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져 있다(Fig. 5). 길이 164.4cm, 너비 5.7cm 크기이며 0.7~2cm 간격의 시침질로 성글게 바느질 되어 있다(Table 3). 이 허리띠의 중간 부분에 귀주머니가 걸려 있다. 귀주머니는 연두색의 문건 겹감과 소색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져 있다. 길이 15cm, 주머니 입구너비 5.4cm, 아래너비 13.5cm 크기이며 재봉틀로 바느질되었다. 주머니는 꽃분홍색의 매듭끈으로 여며져 있다(Fig. 5(b)).

6) 등배자와 등토시

등배자는 가느다란 등나무를 원형으로 돌려 캡 소매가 달린 방령의 조끼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Fig. 6). 조형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등배자는 총길이 46cm, 너비 41.5cm 크기이다(Table 4). 소매를 형성하는 부위의 등나무 줄기가 앞뒤로 서로 교차되면서 연결되어 있어서 앞길과 뒷길이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Fig. 6(b)). 등토시 1쌍이 등배자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눌린 상태로 보관되어 펼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Fig. 6(c)). 등토시는 팔 부위의 지름이 9~10cm, 손목 부위의 지름이 7cm 크기이다

2. 관모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남자의 관모로는 갓과 탕건이 있다. 갓은 양태의 지름이 25cm, 대우의 아래쪽 지름이 15cm, 대우의 높이가 11.5cm 크기의 흑랍이다(Fig. 7). 대우의 하단 양쪽에 비쳐 보이는 흑색의 사직물로 끈이 달려 있으며 모정에는 십자형의 정꽃 장식이 선명히 보인다(Fig. 7(b)). 탕건은 아래쪽 지름이 18cm, 높이

가 14cm 크기로 갓 안에 함께 끼워진 채로 오랫동안 보관되어 아래쪽 이마를 덮는 부위가 살짝 찌그러져 있다(Fig. 8). 갓과 탕건의 세부 치수는 <Table 5>와 같다.

Fig. 7. Top hat (gat)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Fig. 8. Skullcap (tanggeon)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Fig. 6. Man's under-vest (deungbaeja) and wristlets (deungtosi) of wisteria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Table 4. Measurements of a man's under-vest (deungbaeja) and wristlets (deungtosi) of wisteria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Material	Length	Width	Diameter	Inner diameter
Under-vest (deungbaeja)	Wisteria	46	41.5	-	-
Wristlets (deungtosi)	Wisteria	-	-	9-10	7

Table 5. Measurements of a top hat (gat) and a skullcap (tanggeon)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Material	Height	Diameter	Inner diameter
Top hat (gat)	Horsehair	11.5	25	15
Skullcap (tanggeon)	Horsehair	14	18	-

IV. 여자 한복의 조형적 특징

1. 의복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여자의 의복으로는 저고리, 치마, 속치마, 속바지, 속속곳이 있다.

1) 여자 저고리

여자 저고리는 남자 저고리와 동일한 소재인 옥색의 유문사 겹감과 소재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저고리이다(Fig. 9). 뒷길이 39.4cm, 화장 73cm, 뒤편 53cm 크기이다(Table 6). 겹감은 0.2~0.5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 되었으며 안감은 재봉틀로 바느질 되어 있는데, 남자 저고리가 안감 겹감 모두 0.2~0.3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여자 저고리는 부위에 따라 바느땀의 크기가 다른 것이 특징인데, 2겹 박기 위치인 도련과 수구 부분은 0.4~0.5cm 간격, 4겹 박기 위치인 배래와 옆선은 0.2~0.3cm 간격의 홈질이 되어 있다. 착장시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는 부위의 바느땀을 크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을 꾀하고 있다. 깃의 형태는 둥그래 깃이며 깃너비는 4.2~5cm로 안깃너비가 조금 더 넓은 것이 특이하다. 겹깃길이 21.7cm, 고대 16cm, 안깃길이 27.3cm이다. 1.6cm 너비의 부드러운 명주 동정이 달려 있다. 안고름은 없으며, 겹고름은 5cm 너비인데 긴 고름의 길이가 70cm, 짧은 고름의 길이가 53.4cm이다.

겹감과 안감의 등술은 오늘날과 같이 술기가 서로 반대로 향하도록 꺾여 있는데 다만 겹감 술기의 분량이 매우 적다. 겹감, 안감 모두 어깨술은 없고 진동은

Fig. 9. Woman's jacket (jeogor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가름술이다. 안감은 셔이 분리되지 않고 길과 한 장으로 마름질되었으며, 겹감은 겹셔, 안셔 모두 분리되어 재단되었는데 셔의 식서와 시접 방향은 오늘날 셔를 얹히는 방식과 동일하다. 겹셔 끝 부분은 코 없이 남자 저고리처럼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깃의 안감이 따로 없고 길의 안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대 부분에 바대를 댄 점이 역시 남자저고리와 동일하다.

2) 치마

치마는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과 동종의 직물인데 다만 색이 다르다. 아이보리색의 유문사로 만들어진 3폭 홈치마로서 허리 포함한 세로 길이가 118.2cm이다(Fig. 10). 치마 1폭의 너비는 69cm이며 치마폭은 직물의 너비를 그대로 사용했다. 치마폭 양 가의 시접이 각각 0.5cm이므로 치마에 사용된 직물의 너비는 원래 70cm임을 알 수 있다. 치마허리는 너비 10.5cm, 길이 97cm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치마폭과 동일한 옷감이 사용되었다(Table 7). 치마폭의 연결은 0.2~0.3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 치마의 주름이 오늘날의 한복 치마와 달리 맞추름인 것이 특징인데 <Fig. 10(b)>

(a)

(b)

Fig. 10. Woman's skirt (chima)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Table 6. Measurements of woman's jacket (jeogor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Construction	Material	Sewn by	Length of back bodice	Width of back bodice	Length of sleeve	Width of sleeve
Woman's jacket	Lined	Silk, cotton	Hand, machine	39.4	26.5*2	46.5	16.5-20.2

에 보이는 바와 같이 6~6.5cm 간격으로 총 13개의 맞주름이 잡혀 있으며 안자락 폭 맨 마지막에 1개의 홀주름이 잡혀 있다. 치마의 폭과 폭을 이은 시접은 안자락 방향으로 꺾음술로 처리되었고 치마단은 3cm가 접혀져 2~2.5cm 간격의 공그르기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

3) 속치마

속치마는 뽀뽀한 느낌의 옥색의 평직 생사로 만들어진 6폭의 홀치마로서 허리 포함한 세로 길이가 112.5cm 크기의 통치마형이다(Fig. 11). 접혀서 눌린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되어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았고 쉽게 퍼지지 않았다. 속치마는 0.3~0.4cm 간격의 홀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 속치마의 주름은 겹치마와 같은 맞주름인데 전, 후 각각 6개씩 주름이 잡혀있고 허리끈이 부착된 옆선에 41cm의 트임이 있다. 속치마 1폭의 너비는 35.5cm이며 직물의 너비를 치마폭에 그대로 사용했다. 겹치마와 마찬가지로 치마폭 양가의 시접이 각각 0.5cm이므로 치마에 사용된 직물의 원래 너비는 36.5cm임을 알 수 있다. 치마허리는 너비 10.5cm, 길이 97cm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서양목으로 만들어졌다(Table 7).

치마끈은 치마허리와 동일한 감으로 만들어졌는데 <Fig. 11(b)>에 보이는 바와 같이 끈의 가장자리에 영문 알파벳으로 'REISS BROTHER MANCHESTER'라는 글자와 문양이 찍힌 것이 비치는데 찍힌 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리끈이 만들어져 있다. 영국의 복식사학자 Christopher Breward에 의하면 REISS BROTHER는 맨체스터의 제조업자의 이름으로 추측되며, 1940년대 당시 맨체스터의 면직물은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었다고 한다(E-mail with author in 22 January 2009). 1940년대 무렵의 맨체스터산 면직물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한복으로 만들어지고 이 한복은 다시 영국으로 보내어져

(a)

(b)

Fig. 11. Woman's petticoat (sokchima)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영국의 박물관에 수십년간 보관되어 왔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4) 속바지

속바지는 겹감 안감 모두 소색의 광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밑이 벌어지는 형태의 겹바지이다(Fig. 12). 허리 포함한 세로 길이가 116cm로서 겹치마보다 짧고 속치마보다 길어서 속치마 안에 입었을 때 속바지는 속치

Table 7. Measurements of woman's skirt (chima), petticoat (sokchima), and under trousers (sokbaji and soksokgot)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Construction	Material	Sewn by	Whole length	Waist (W / L)	Waistband (W / L)	Width of skirt	Number of pleats
Skirt (chima)	Unlined	Silk	Hand	118.2	10.5 / 97	5 / 91.5 5 / 110	69*3	13
Petticoat (sokchima)	Unlined	Silk, cotton	Hand	112.5	10.5 / 97	6 / 70 6 / 80	35.5*6	12
Under trousers (sokbaji)	Lined	Cotton	Machine	116	11 / 89	5.5-5.8 / 94 5.5-5.8 / 94.5	-	13
Under trousers (soksokgot)	Unlined	Cotton	Machine	102.6	11 / 81	6.5 / 88.5 6.5 / 93	-	14

Fig. 12. Woman's under trousers (sokbaj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마 단 아래로 살짝 보이게 된다. 허리 너비는 11cm, 허리둘레는 89cm의 크기이며 재봉틀로 튼튼하게 바느질되어 있다(Table 7). 앞판에는 6개, 뒤판에는 7개의 주름이 잡혀 있는데 좌우의 주름이 중심을 향하도록 잡혀있다. 주름의 개수는 좌우가 다른데, 앞판의 경우 트임이 있는 쪽은 2개, 트임이 없는 쪽은 4개의 주름이 있고, 뒤판의 경우 트임이 있는 쪽은 3개, 트임이 없는 쪽은 4개의 주름이 잡혀있다.

5) 속속곳

속속곳은 소재의 광목으로 만들어진 밑이 막힌 홀웃으로 허리 포함한 세로 길이가 102.6cm 크기이다(Fig. 13). 허리너비는 11cm, 허리둘레는 81cm이며 재봉틀로 바느질되었다(Table 7). 주름은 앞판에 6개, 뒤판에 8개가 중심을 향하도록 잡혀있다. 앞판의 주름은 허리의 트임 때문에 좌우 주름의 개수가 다르다. 트임 있는 쪽에 2개, 트임 없는 쪽에 4개의 주름이 있다. 뒤판에는 좌우 각각 4개씩의 주름이 잡혀 있다. 속속곳은 속바지에 비해 덜 정교하게 만들어진 편이다. 허리끈의 경우 끝의 울 폴립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둔 점 등이 그 예이다. 속바지의 바지폭에 사용된 광목의 경우 직물폭

Fig. 13. Woman's under trousers (soksokgot)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전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광목의 원래 너비가 88cm임을 알 수 있다.

2. 기타

의복 이외의 품목으로 토시 1쌍과 버선 1켤레가 있다.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토시가 여자 복식 일습과 같은 카테고리일괄 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자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토시는 평직 바탕에 주자직의 원형 문양이 시문된 보라색 별문영초 겹감과 소색 광목 안감으로 제작되었는데 각 토시의 손목 부분에 원형의 아래 일부 문양이 좌우 대칭으로 맞추어져 있다(Fig. 14). 버선은 겹감과 안감 모두 소색 광목으로 만들어진 솜버선이다(Fig. 15). 버선 코에서 뒤축까지의 발길이는 26cm 이다. 토시와 버선의 세부 치수는 <Table 8>에 정리된 바와 같다.

V.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의 복식사적 의의

1. 1930~40년대 남녀 평상복 일습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여자 저고리는 Choi(2008)의 연구와 Lee(2009)의 논문에서 소개된 경운 박물관 등

Fig. 14. Wristlets (tosi)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Fig. 15. Socks (beoseon)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6).

Table 8. Measurements of wristlets (tosi) and socks (beoseon)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tem	Construction	Material	Sewn by	Length	Width	
Wristlets (tosi)	Lined	Silk, cotton	Hand	24	Wrist/Arm	11. 7 / 15.3 12 / 15.5
Socks (beoseon)	Lined, padded	Cotton	Machine	35	Bottom/Top	22.5 / 19

국내 박물관에 소장된 근대 여자 저고리 유물들과 세 부치수(저고리 길이, 옆선길이, 깃너비, 고름너비 등)를 비교해 볼 때, 유물의 제작연대가 1930~40년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 저고리는 동시대의 여자 저고리들 가운데 저고리 길이, 옆선길이, 겹깃길이가 긴 유형에 해당한다. 1930~40년대의 여자 저고리 길이는 보통 30~40cm이며 옆선길이는 8~18cm, 겹깃길이는 17~20cm 사이에 분포하는데 호니만 박물관 소장 여자 저고리의 길이는 39.4cm, 옆선길이는 17cm, 겹깃길이는 21.7cm로 길이가 긴 편이다. 유물 저고리의 화장도 73cm로 오늘날의 저고리 치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적지 않은 치수이다. 착용자의 키가 동시대 여자 평균 치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 저고리와 여자 저고리는 동일한 소재인 옥색의 유문사 겹감과 소재의 광복 안감으로 만들어졌다. 여자의 치마 역시 색만 다를 뿐 동일한 종류의 유문사 겹감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곧 이들 복식 일습이 부부용으로 동시에 제작된 옷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자 저고리는 안감과 겹감 모두 손바느질로 제작되었고 여자 저고리는 겹감은 손바느질, 안감은 재봉틀로 제작되었다. 또한 남자 저고리의 바늘땀이 더 정교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남자 저고리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저고리의 제작자가 아내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따라서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일습은 아내에 의해 제작된, 1930~1940년대의 부부용 평상복 일습을 알 수 있는 복식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단속곳을 대신한 속치마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여자의 속옷 일습에는 속속곳, 속바지, 속치마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단속곳은 빠져 있고 속치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속치마는 옆선에 41cm 정도의 트임이 있는 통치마형으로 치마 밑단을 제천으로 3번 접어 오늘날과 유사하게 아래쪽을 부풀리는 현대식 페티코트의 형태를 보인다(Fig. 16). 접힌 단의 너비는 각

Fig. 16. Layered hemline of woman's petticoat (sokchima) held in the Horniman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각 4cm이며 시침질로 고정되어 있다. Jeong(2000)에 의하면, 1920~1950년대 서부 경남의 혼례에서 신부는 치마 바로 아래의 속옷으로 단속곳 또는 속치마를 입었는데 대부분 단속곳보다 속치마를 즐겨 입었다고 한다. 호니만 박물관 소장 속치마는 이러한 민속조사 기록을 증거함과 동시에 단속곳이 점차 사라지고 오늘날의 조끼허리형 속치마가 등장하기 이전, 초기 속치마 형태를 보여주는 소중한 복식 자료라 하겠다.

3. 배자형과 조끼형 사이의 과도기형 등배자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등배자는 방령의 네크라인에 고대 부분이 부가되어 있고 캡 소매와 유사한 작은 소매가 달린 형태이다. 이러한 소매 부착형 등배자는 <Table 9>에 정리된 바와 같이 원불교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1930~40년대의 등배자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국립 민속 박물관의 사진 아카이브(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b)에서도 비록 고대 부분은 없지만 호니만 박물관 소장 등배자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방령 네크라인에 캡 소매와 유사한 작은 소매가 달린 등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30~40년대에 주로 등장하는 이러한 소매 부착형 등배자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배자형 등배자와 그 형태가 조금 다르다.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배자형 등배자는 한복의 평면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Table 9. Varied shapes of men's under-vest (deungbaeja) of wisteria in the 20th century

Year	Varied shapes of men's under-vest of wisteria		
1890s-1900s
	Held in The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in Cambridge	Held i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September 10).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a). http://www.nfm.go.kr	
1930s-1940s
	Held in The Horniman Museum in London	Held in The Museum of Won-Buddhism History	Held i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09, March 17).	From The Museum of Won-Buddhism History. (2011). http://www.wonmuseum.net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b). http://archive.nfm.go.kr
1950s-1960s
	Held in The Museum of Won-Buddhism History	Held in The Onyang Folk Museum	Held in The Ojukheon & Gangneung Municipal Museum
	From The Museum of Won-Buddhism History. (2011). http://www.wonmuseum.net	From The Onyang Folk Museum. (1995). p. 33.	Photographed by Park, H. J. (2007, July 16).

다. 배자형 등배자는 바닥에 놓았을 때 입체감이 없이 평평하며 어깨에 끼워진 연결고리를 경첩으로 삼아 앞길과 뒷길이 완전히 짚혀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호니만 박물관 소장 등배자는 바닥에 놓았을 때 입체감이 없이 평평하고 어깨에 끼워진 연결고리에 의해 앞길과 뒷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소매를 형성하는 부위의 등나무 줄기가 앞뒤로 서로 교차되면서 얹혀 있어서 앞길과 뒷길이 짚혀지지 않는 형태이다.

원불교 역사 박물관에는 1950~60년대에 착용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형태의 등배자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서양복 입체구성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매를 없애고 진동을 곡선으로 파고 어깨를 곡면화시킨 서양복 조끼 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조끼형 등배자가 온양 민속 박물관과 오죽헌 강릉 시립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근대 시기 조선의 배자가 점차 서양복 조끼로 바뀌어 가면서 등배자의 형태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0세기 전반기에 등배자는 평면적 배자형에서 점차 입체적 조끼형으로 바뀌어 갔는데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소매 부착형 등배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형 등배자로서 보존 상태도 매우 우수하여 복식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영국 런던의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20세기 전반의 한국 복식 유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관계자 및 연구자들에게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문화재의 존재를 알리고 개별 유물의 조형적 특징과 복식사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유물은 총 18점이다. 남자 복식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두루마기 1점, 조끼 1점, 저고리 1점, 바지 1점, 대넒 1쌍, 허리띠 1점, 주머니 1점, 등배자 1점, 등토시 1쌍, 갓 1점, 탕건 1점으로 총 11점이다. 여자 복식 품목은 저고리 1점, 치마 1점, 속치마 1점, 속바지 1점, 속속곳 1점으로 총 5점이며 기타로 여자용으로 추정되는 토시 1쌍과 버선 1켤레가 있다.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 가운데 등배자와 등토시는 1948년 C. de J. Luxmore 부인에 의해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 등배자와 등토시, 갓과 탕건을 제외한 나머지 14점의 남녀 한복 일습은 1953년 Bowra 부인에 의해 기증된 것이다. 갓과 탕건은 기증자가 확실치 않으나 Bowra 부인에 의해 일괄 기증된 남녀 복식 일습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자 저고리 길이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복 유물의 제작 및 착용연대는 1930~40년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자 복식의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두루마기는 백색의 명주 겹감과 연초록색의 얇은 평건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두루마기이며 손바느질로 제작되었다. 조끼는 연보라색 숙고사 겹감과 소색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조끼이며 뒤가 앞보다 4cm 더 길고 옆트임이 있는 형태이다. 남자 저고리는 옥색의 평직 유문사 겹감과 소색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졌으며 뒷길이 58.7cm 크기의 겹저고리이다. 바지는 연황색의 얇고 부드러운 평건 겹감과 소색의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사폭 바지이며 대넒은 연보라색 명주로 제작되었다. 허리띠는 보라색의 두꺼운 능조직의 면직물로 만들어졌으며, 허리띠에 끼워진 채로 보관된 주머니는 연두색 문견 겹감과 소색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귀주머니이다. 등배자는 캡 소매가 달린 방령의 조끼와 유사한 형태이다. 갓은 모정에 십자형의 정꽃이 장식된 흑립인데 아래에 탕건이 끼워진 채로 보관되어 있었다.

셋째, 여자 복식의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자 저고리는 남자 저고리와 동일한 색과 소재이며 뒷길이

39.4cm 크기의 겹저고리이다. 치마는 저고리 옷감과 동종의 소재인데 색만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70cm의 직물 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손바느질로 제작된 3폭 치마인데 치마의 주름은 맞주름 형식으로 잡혀있다. 속치마는 뽀뽀한 느낌의 옥색의 평직 생사로 만들어진 6폭 통치마이며 겹쳐서 눌린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되어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은 상태였다. 속바지와 속속곳은 모두 소색의 광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재봉틀로 튼튼하게 박음질 되어 있다. 여자용으로 추정되는 토시 1쌍은 보라색 별문영초 겹감과 소색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졌는데 좌우의 손목 부위에 원형의 별문이 좌우 대칭으로 맞추어져 있다. 버선은 소색 광목으로 만들어진 숄버선이다.

넷째, 호니만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의 복식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남자 저고리와 여자 저고리의 소재 및 바느질 등을 비교해 볼 때 호니만 박물관에 소장된 남녀 한복 일습은 아내에 의해 제작된 부부의 평상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호니만 박물관 소장 일괄 유물들은 1930~40년대의 남녀 평상복 형태와 구성을 온전히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일괄 유물 가운데 특히 복식사적 가치가 높은 품목으로는 속치마와 등배자를 들 수 있다. 호니만 박물관 소장 속치마는 단속곳이 사라지고 오늘날의 조끼허리형 속치마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 속치마의 초기 형태와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니만 박물관 소장 등배자는 방령의 네크라인에 캡 소매와 유사한 작은 소매가 달린 형태의 등배자인데, 이러한 소매 부착형 등배자는 평면적인 배자형 등배자와 입체적인 조끼형 등배자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로서 호니만 박물관 소장 등배자 유물을 통해 20세기 등배자의 형태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ferences

- Choi, E. S. (2008). The appraisal of female jackets from the period of 1890s-196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5), 178-197.
- Horniman Museum. (2011). History of the Museum. *Horniman History*. Retrieved October 6, 2011, from <http://www.horniman.ac.uk>
- Jeong, B. N. (2000). A study of folklore on the traditional wedding of the West Gyeong Nam District-Focused on 1920s-1950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8(6), 871-886.
- Kwon, H. J., & Hong, N. Y. (2008). A study on embroidery

- design patterns of Hwal-ot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8), 1255–1263.
- Kwon, H. J., & Hong, N. Y. (2009). Study on Hwal-ot at the Field Museum of Chicag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6), 94–105.
- Lee, H. J. (2009). *A study on historical change in female jeogori in modern ti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6).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Brooklyn Museum, New York, USA*. Daejeon: Author.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Museum of East Asian art in Cologne, Germany*. Daejeon: Author.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8).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U.S.A*. Daejeon: Author.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Bunka Gakuen Costume Museum, Tokyo, Japan*. Daejeon: Author.
- The Museum of Won-Buddhism History. (2011). Remains & e-book. *The Museum of Won-Buddhism History*. Retrieved October 6, 2011, from <http://www.wonmuseum.net>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a). Data info.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Retrieved October 6, 2011, from <http://www.nfm.go.kr>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b). Data search. *The Center of Folklife Archives*. Retrieved October 6, 2011, from <http://archive.nfm.go.kr>
-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1999). *Korean cultural properties of the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France*. Seoul: Author.
- The Onyang Folk Museum. (1995). *Onyang Folk Museum shown through illustration and commentary*. Asan: Author.
- Yun, E. J., & Lim, Y. J. (1998). A study of Korean costume in the collection of overseas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6, 219–238.
- Yun, E. J., & Son, K. J. (1994). A survey of Korean costume cultural assets in overseas focusing on New York area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3, 79–97.